

새만금, 전북 '기회의 문'...남은 건 실행력



전북은 대규모 투자와 국가 전략사업을 발판으로 산업 지형을 바꾸는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새만금 가력도 일대 전경. (관련기사 16면) <사진=전북자치도>

창간 15주년을 맞은 전북타임스는 지금, 전북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뒤돌아 보며 묻는다.

오랜 시간 가능성에 머물러 있던 새만금과 전북 경제는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대규모 민간 투자와 국가 전략 사업, 그리고 정부의 직접 개입이 맞물리며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인 전환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제명 정부 출범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전북과 새만금의 주요 투자와 정책 흐름을 짚고, 그 변화의 방향을 조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기대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중심으로 현재를 진단한다.

전북은 다시 기회를 맞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낼 것인가다. 전북타임스는 창간 15주년을 맞아 변화의 출발점에서 전북의 현재를 기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 바라본다.

이번 전북·새만금 개발 흐름은 산업, 에너지, 정책이 결합된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대규모 민간 투자가 산업의 뼈대를 형성하고, 인공지능 중심 국가 전략 사업이 방향을 설정한다. 수소와 재생에너지는 이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작용하며, 대형 데이터 인프라는 산업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여

기에 정부의 전담 추진 체계가 더해지며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개별 사업이 흩어져 추진되던 방식과 달리, 하나의 산업 체계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만금이 단순 개발 지역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의 일부로 편입되는 흐름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성패는 여전히 실행에 달려 있다. 투자 계획이 실제 착공과 운영으로 이어지고, 기업과 산업이 자리 잡는 단계까지 도달해야 비로소 구조가 완성된다. 이번 변화는 조건만 놓고 보면 과거와 다르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조건을 결과로 바꿔내는 실행력이다.

①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2026년 공식화, 전북 최대 투자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계획은 2026년 초 정부와 산업계 논의 통해 공식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 9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이번 투자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로봇 생산기지, 수소 생산 설비, 재생에너지 발전, 수소·AI 기반 시범도시 조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AI 데이터센터는 수조 원대 투자가 예정된 시설로,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산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수소 생산과 재생

에너지 사업이 결합되면서 새만금은 에너지 생산과 첨단 산업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전북 지역 단일 기업 투자로는 최대 규모가 된다.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단계는 투자 계획이 공개된 초기 단계로, 실제 착공과 투자 집행 속도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과거 새만금 개발이 계획에 비해 실행이 지연된 사례가 반복된 만큼, 이번에는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② 전북 '피지컬 AI' 사업...2025년 말~2026년 정부 전략사업으로 부상

전북을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 산업 육성 정책은 2025년 말부터 정부 내 전략 사업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2026년 들어 구체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과 로봇,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산업을 지역 기반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GPU 기반 연산 인프라 확충과 기술 실증 사업이 함께 추진되면서 단순 연구개발을 넘어 산업화 단계까지 염두에 둔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정 투입 역시 단계

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정책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 차별화된 접근으로 평가된다. 전북을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추진 과정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③ 수소·재생에너지 클러스터...2023년 이후 본격화, 현재 확대 추진

새만금 수소 및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2023년 정부의 재생에너지 및 수소 정책 강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해 2024~2026년 현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결합해 산업단지 내에서 에너지를 자급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이는 기존 산업 단지가 외부 전력 공급에 의존했던 방식과는 차별화된 모델이다.

수소 생산과 모빌리티 산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면서, 생산된 에너지를 산업 전반에서 활용하는 순환 구조 구축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산업 운영 환경

<창간 15주년 기념사>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타임스신문이 창간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5년의 시간 동안 전북타임스는 지역의 현안을 기록하고, 권력과 정책을 감시하며,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언론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 언론의 역할은 단순한 전달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며, 지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경제와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지역이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언론은 더 냉정해야 하며, 더 깊이 있게 현실을 진단해야 합니다.

전북타임스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보도,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책임 있는 비판을 통해 지역 사회의 건강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목소리일지라도, 그것이 지역을 위한 길이라면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창간 15주년을 지나는 시간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책임을 다시 묻는 출발점입니다. 전북타임스는 지역의 현재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묻는 언론으로 서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타임스신문 사장 최준호 드림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장기적인 투자와 정책 일관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 지속성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현재는 개별 사업이 병행 추진되는 단계로, 통합적인 산업 구조 완성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④ 새만금 AI 데이터센터...2026년 투자 논의 본격화

새만금 지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2026년 들어 투자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이 사업은 대규모 GPU 연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학습과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 개발에 필요한 대량 데이터 처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 의미가 크다. 단순한 데이터 저장 시설을 넘어 첨단 산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산업과 AI 산업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글로벌 데이터센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실제 수요 확보와 운영

효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새만금은 국내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⑤ 새만금 대혁신 TF...2026년 초 출범, 정부 직접 추진체계 가동

정부는 새만금 및 전북 지역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초 국무총리 직속 '새만금 대혁신 TF'를 출범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조직은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부처 간 조율 지연과 행정 절차로 인해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개입해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속도전을 강화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TF는 각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주요 투자 사업과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같은 방식은 새만금 개발이 단순 지역 사업을 넘어 국가 전략 사업으로 격상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성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

<특별취재반>

친환경으로 미래를 짓다

누구나 찾고, 머물고, 살고 싶은 곳,
친환경·지속가능한 개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치를 높이고
당신의 꿈을 담아 전북의 미래를 짓습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축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5주년, 새로운 미래 준비하는 뜻깊은 출발점

전북타임스의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5년 동안 전북타임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론을 지키며,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보도로 사회의 등불이 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 진실을 가려내고 본질을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 전북타임즈가 걸어온 길은 우리 사회의 신뢰와 희망을 쌓아온 소중한 역사라 할 것입니다.

전북타임즈는 특히, 독자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때로는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15주년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북타임즈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면서도 언론의 본질적 가치인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책임감을 굳건히 지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더욱 깊이 있는 보도와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앞으로 30년, 5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전북타임즈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지역 교육 발전 이끄는 동반자 되길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유정기입니다.

전북타임스의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전북타임스는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도민과 함께 호흡해 온 든든한 언론으로 자리해 왔습니

다. 현장의 변화를 깊이 있게 전하고, 공동체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조명해 온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꾸준히 비취 주신 점은 전북교육이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타임스가 균형 잡힌 시각과 책임 있는 보도를 통해 지역과 교육의 발전을 이끄는 동반자로 함께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북타임스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며 지역의 희망과 비전을 밝혀주는 언론으로 오래도록 자리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전북타임스의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리며,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북 발전 도민 행복 징검다리 역할 기원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윤동욱입니다.

지역의 눈과 귀이자, 시민의 신뢰받는 지역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북타임스의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의 책임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시대와 지역의 흐름을 성찰하며 정도언론(正道言論)의 길을 걷고 있는 전북타임스 최준호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북타임스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지역민의 알 권리를 지키며,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지역사회 곳곳을 비추며 사명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로 우리 지역은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북타임스가 지향하는 '전북의 발전이 곧 도민의 행복'이라는 비전처럼 앞으로 지역발전의 징검다리로서 지역의 혁신 역량을 모으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전주시 또한 시민을 더 행복하게 하고, 미래세대의 꿈을 키우는 전주의 변화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더 큰 발전과 도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변화 이끌어갈 언론 기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선도하고 있는 전북타임스가 창간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북대학교 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 수렴과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지역 발전의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타임스의 정론직필 한 길에 대해서도

밝고 건 강하며 정보 가치가 높은 고품질 뉴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 함으로써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창간 15주년을 기점으로 지역 현안들에 대한 심층보도와 지역의 미래를 제시할 기회

보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을 말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인입니다. 지역의 현실을 면밀히 진단하고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갈 공기(公器)로서

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의 대한 무한한 애정을 바탕으로 우리 이웃들의 아름답고 진솔한 이야기를 가득 담아 독자들이 먼저

찾고, 손꼽아 기다리는 언론으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전북타임스의 발전 속도가 눈부십니다. 신문의 출발은 2011년입니다. 초창기 '일일전북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2015년 다시 전북타임스로 제호를 바꾸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전북타임스는 이제 여섯 번째 정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일간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독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독자의 신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북타임스의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역 소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언론이 그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타임스가 가장 앞장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전북타임스의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창간 15주년

www.khnp.co.kr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수원, 대한민국 물에 별 그리다!

대한민국을 밝히는 깨끗한 수력 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이 함께합니다

무주양수발전소

무주양수발전소는 무공해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로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이란?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심야전력, 주간 잉여전력을 이용하여 위치가 낮은 하부저수지의 물을 위치가 높은 상부저수지로 끌어 올려 저장하였다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 저장된 물을 하부저수지로 낙하시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양수발전은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주파수 조절 및 정격전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무주양수홍보관 관람정보

- ▶ 개관시간 : 주중 09:00 ~ 17:00(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
- ▶ 휴 관 일 : 주말 · 공휴일 · 신정 · 설연휴 · 추석연휴 · 기타 회사 기념일 및 지정일
- ▶ 관람신청
 - 전화문의 : 070-4000-2141, 2144 / FAX : 0502-734-0543
 - 인터넷신청 : www.khnp.co.kr/람수원 방문신청 / SMS인증 / 무주양수 전시관
- ▶ 주 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788 「무주양수홍보관」



김제시장 “지역언론의 모범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길”



정성주 김제시장

공정한 보도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의 기수가 되고 있는 전북타임스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15주년을 맞은 전북타임스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콘텐츠와 미디어를 다루는 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뜨거운 열정으로 공정하고 새로운 소식을 전해 전북도민과 김제시민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민선8기를 맞아 자치단체마다 주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정부에서는 정보공개로 통한 소통에 발 벗고 나서고 있어 지역 언론의 중

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북타임스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누구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소식을 전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취재해 시민에게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타임스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기대하며, 지역 언론의 모범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15주년을 축하하며 전북타임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장 “올바른 방향 비추는 등불 되어 주길”



이학수 정읍시장

전북타임스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려운 언론 환경 속에서도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해 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타임스는 지난 15년 동안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대변해 왔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고 깊이 있는 기사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충족시켜주셨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날카로

운 비판과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비추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읍시 역시 전북타임스가 걸어갈 희망찬 앞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리며, 전북타임스의 무궁한 발전과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완주군수 “독자에게 사랑 받는 정론직필의 표상 되길”



유희태 완주군수

서도 지역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북타임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와 주민들의 고찰을 오롯이 담아내는 진정한 매체는 여전히 목마른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전북타임스가 내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라는 기치는 전북과 완주의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완주군은 현재 '모두가 누리는 미래형

복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소특화 국가산단, 피지컬 시티를 통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이러한 발걸음에 전북타임스가 건전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동반자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전북타임스의 창간을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독자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론직필의 표상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창군수 “지역발전 위한 도민의 든든한 대변자 되길”



심덕섭 고창군수

전북타임스의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이후 독자들의 알권리와 저널리즘의 가치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온 전북타임스 최준호 사장님과 장정철 편집국장님을 비롯한 전북타임스 가족 여러분께 커다란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전북타임스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는 신문으로, 전북의 미래를 선도하는 신문으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의 다양하고 폭넓은 소식을 전달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 정론지로서의 사명을 다해 왔습니다.

고창군은 올해를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삼성전자를 비롯해 용평리조트 등 국내 최고의 기업들이 고창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또 1천만 관광객 시대 개막과 함께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생활여건 개선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북금강일보에서도 지역의 매력을 많이 알려 주십시오. 눈과 귀가 즐겁고,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오감만족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전북타임스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시의회 “언론 사명 다하는 전북타임스에 감사”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장

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북타임스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북타임스는 지난 15년간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 주셨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현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미디어와 통신기기의 발달로 각종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요즘,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알려 나가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언론의 책임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타임스가 지난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지역 언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익산시의회도 전북타임스의 소중한 제언에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의 행복과 익산의 발전을 위해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타임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안군수대행 “정정당당·불편부당 언론 책임과 사명 다해”



이광명 진안군수대행

전북타임스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전북타임스는 '정정당당(正正堂堂)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보도'를 사시(社是)로 내걸고 사회적 공익인 언론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신속한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지역 사회의 공론을 이끌면서 독자들의 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뛰어오신 전북타임스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변화에 앞서가는 신문, 선진화를 이끌어 가는 신문으로서 새로운 시대적 사명에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북타임스의 큰 발전을 기원하며,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변화 속에서도 공정성 지켜온 15년 축하”



완주군의회 유희식 의장

주민자치1번지, 그리고 완주의 백년 먹거리 수도도시 1번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완주군의회 유희식 의장입니다. 먼저, 전북타임스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5년 동안 전북타임스는 지역의 크고 작은 이야기를 성실하게 담아내며 도민과 늘 함께해 온 소중한 언론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정성과 책임을 지키며 지역사회에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발걸음이 쌓여 오늘의 뜻깊은 1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북타임스가 지역과 행정을 이어주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김제시의회 “전북타임즈, 민주주의 토양 가꾸”



김제시의회 서백헌 의장

전북타임즈가 창간 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함께 기념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김제시의회를 대표하여,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해 전북타임즈의 지난 15년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 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정치입니다. 그러나 주민이 알지 못하면 참여할 수 없고, 참여하지 못하면 자치는 겉데기에 불과합니다.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지방 민주주의가 살아납니다. 전북

타임즈가 지난 15년간 전라북도의 의정과 행정, 그리고 민생의 현장을 성실하게 기록해 온 것은, 바로 그 민주주의의 토양을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15년의 기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입니다. 앞으로도 전북타임즈가 전라북도 도민의 삶 곁에서,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따뜻하게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북타임즈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율점검은 가족사랑입니다.

창간 15주년

사랑실천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안전 지침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고객의 공과 행복을 지키는 사람들

가스렌지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우리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만능 해결사입니다.

사용 전 후 환기하기

사용 후 밸브 잠그기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불꽃 확인하기

전북도시가스(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경재안길 31 / 전화 1811-7700 www.jbcitygas.co.kr
도시가스 안전점검 사전 안내 서비스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신청한 범죄 예방 및 방문 예정일 사전안내 문자(SMS) 서비스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시가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1811-7700)



27일 창간 15주년을 맞은 본보는 앞으로 창간 50년, 100년을 향해 '약속의 땅' 새만금처럼 힘차게 비상을 다짐한다 <사진=전북도>

전주시 아동수당 지급 체계 전면 개편

만 8세에서 만 9세로 확대 지원 금액 5000원 인상

전주시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전주시 아동수당 지급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이번 개편은 지급 대상 연령이 기존 만 8세에서 만 9세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특히 현재 만 8세 미만인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오는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혜택을 넓히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우선적으로 만 9세 미만 아동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며,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생 아동에게는 1월부터 소급해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기존 월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지역별 차등 지원 원칙에 따라 전주시의 경우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 해당돼 월 105,000원으로 5000원 오른다.

시는 고물가 시대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된 아동의 보호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연락해 정보 변경 유무 및 구체적인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하는 안내 문자메시지에 직접 회신하는 방법으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지급 계좌나 보호자 정보 등 과거 데이터와 현재 상태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급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존 수급 가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된 금액이 자동 적용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중동발 위기 대응 2차 점검회의

민생안정 분야별 대응상황 점검 수출기업·물가·유가·에너지원 총력

전주시는 26일 중동 지역 긴장 상황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위한 '중동시대 대응 비상경제 2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12월 1차 회의 이후 수출 기업·물가·유가·에너지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동 정세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

시장을 단장으로, 경제 안정과 에너지 대응, 교통 대응, 복지 지원 등 4개반 소관업무 부서장이 참석해 정부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대응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시는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동향을 상시 점검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수출기업 분야에서는 전주시역 수출기업 중 영향권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확대해 예외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물류비 및 수출보험 지원, 국제전시회 참가, 외환 세미나 개최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동시에 민생 분야에서는 전통시장과 마트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해 주 1회 이상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 거래를 지속 점검한다.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역 사랑상품권 상환기 집중 발행 등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 사업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통해 가짜 석유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시민들의 주유소 가격 정보 이용 편의를 위해 시 누리집에 오픈넷(OPINET)을 연동해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 시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방안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과 차량 5부제 시행 등 에너지 절약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장정철 기자

예수병원 '자살시도자 안전망' 구축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원내 협의회' 개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일할

예수병원(병원장 신홍식)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일환으로 '2026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원내 협의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협의회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와 병원 내 주요 협력 부서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초기 관리와 사후 연계를

강화해 자살 고위험 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재시도 예방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1부 '2025년 사업 실적 보고'에서는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및 위기 대상자 초기평가 상담·개입 현황 △사례관리 동의를 및 수행률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실적 등이 투명하게 공유됐다.

이어 2부 '2026년 사업계획 발표'에서는 원활한 사후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올해의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정원산업박람회 다채로운 정원 조성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바탕 전주 정원마당' 주제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열리는 전주 곳곳에 아름답고 다채로운 정원들이 조성된다.

전주정원산업박람회는 오는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시 전역에서 '한바탕 전주 정원마당' 주제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전주월드컵광장(10만㎡)의 정원산업전과 덕진공원(7만㎡) 원한마당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박람회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2배로 확대되고, 정원도 기존 5곳에서 45곳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 월드컵광장 정원 조성 중심에서 덕진공원을 포함해 도시전역으로 확대되

며 하나의 거대정원도시가 된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코리아가든 쇼와 서울 우호정원, 시민참여정원 등 다양한 정원 조성 주체가 참여하는 테마형 정원을 선보인다.

이로서 시는 정원문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정원 전시에서 덕진공원은 10개 테마 정원 광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코리아가든쇼에선 '기후변화 위기·한국 전통정원' 주제로 이달 중 작품 공모를 거쳐 오는 4월 중 조성될 예정이다.

또 서울시 교류 우호정원은 '소요逍遙 서울(전주에서 서울을 거닐다)' 주제로 세계가 주목하는 K-컨텐츠를 모티브로,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의 한양도성을 형상화한 정원이 오는 4월 중 조성될

다.

기업동행정원은 전북현대모터스와 포스코이앤씨, 대자인병원, 전북은행 등 4개 기업이 참여해 각각의 정원 조성을 통해 덕진공원의 경관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게 된다.

시민참여정원은 거점형과 분산형으로 나눠 도심 곳곳에 조성된다.

시민정원은 조경전문가와 초록정원사, 시민정원작가 등 지역 정원 인력과 협업해 기획부터 조성, 유지관리까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보는 정원'을 넘어 '가꾸는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정원해설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우리동네 새단장' 사업 추진

35개 동·145개 단체·2200명 시민 참여 생활밀착형 환경정비 활동 지역 특성 5가지 유형 분류 맞춤형 환경 정비 추진

전주시는 시민과 함께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 생활환경정비 '우리동네 새단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우리동네 새단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환경정비 활동이다.

'우리동네 새단장' 사업은 지난해 경주 APEC 기간 주요 장소에 대한 쾌적한 정비를 성공적으로 주도했던 '대한민국 새단장' 사업에서 출발했다.

지역주민 주도의 상시 관리 체계를 전국에 확산 및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안

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주민 주도 참여 확대 △지속적 관리 체계 구축 △취약지역 우선 정비를 핵심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35개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145개 단체, 약 22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전주형 우리동네 새단장' 운영모형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시는 동별로 자체적으로 작성한 추진계획서를 종합·분석한 후 동별 특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5가지 유형은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유동인구형' △대학가 및 구도심 등이 포함된 '원룸밀집 골목관리형'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된 '공동주택중심형' △대규모 상가들이

밀집된 '상가혼재형' △농촌지역이 포함된 '농촌형'이다.

특히 시는 우선 취약지 정비가 시급한 동을 선정해 사업을 시작한다.

또 시는 월별로 시범 동을 확대해 점진적으로 시 전역으로 사업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자발적인 환경정비 참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주시 직원 청소동호회 '전주반짝'을 운영하며 '줍깅'과 '취약지 정비' 등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전주형 우리동네 새단장'의 명칭 공모 및 아이디어 발굴, SNS 릴레이 캠페인 시행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새만금

농생명산업의 첨단화 | 친환경 농업실현 | 복합 농생명융합지 조성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융합사업부

사람, 자연, 기술이 함께하는 농어촌 플랫폼

한국농어촌공사는 사람중심, 자연과의조화, 미래기술을 기반으로
불확실한 미래 환경에서 농어촌의 지속발전을 이끌어 나가며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농어촌의 희망, 내일의 우리나라를 만들어갑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유성동 “이남호 ‘상산고 10개’ 공약은 거짓”

“확정 안 된 정책연구 초안…도민 기망 안 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성동 예비후보가 경쟁자인 이남호 예비후보의 ‘상산고 수준 거점학교 10개 조성’ 공약을 실제 없는 허위 공약이라고 직격했다. 교육부 정식 사업이 아닌 단순 정책연구 아이디어를 근거로 수천억 원 대 국비 확보를 주장했다는 지적이다.



유성동 예비후보

유 예비후보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 이 예비후보가 발표한 공약의 핵심 근거를 반박했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교육부의 ‘지역명품학교’ 사업을 통해 도내에 최대 10개교를 유치하고, 국비 50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 예비후보는 “교육

부는 현재 ‘지역명품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최대 10개교 유치와 5000억 원 국비 확보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유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역명품학교’는 교육부의 확정된 정책이 아닌 학교 통폐합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 초안에 불과하다. 전국 100개 학교를 선정해 1곳당 500억 원씩 총 5조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 역시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연구 단계의 아이디어라는 것이 유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유 예비후보는 “거

짓 공약으로 도민과 교육공동체를 기망 해선 안 된다”며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근거가 틀렸다면 취지 역시 퇴색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남호 예비후보는 “상산고 수준 거점 캠퍼스형 학교 10개 구축은 중앙정부 사업에 기대는 정책이 아니다”며 “자율형 공립고, 고교학점제, 학교복합시설 등을 결합해 자체적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한 전북 교육 구조개편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전북대학교>

전북대 사상 최고액…김정옥 이사장 80억 기부 완수

지난 2019년 약정 기탁 마무리

전북대학교 사상 최고액을 기부 약정한 김정옥 (재)김희경유림정신문화재단 이사장이 약정액 80억 원 전액 납부를 마쳤다.

전북대는 지난 25일 김 이사장이 마지막 기탁분인 10억 원을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첫 기부 이후 7년에 걸쳐 진행된 기탁의 마무리다.

전체 기탁금 80억 원 중 60억 원은 학내 삼성문화회관 시설 개선에 투입됐다.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사용됐다.

나머지 20억 원은 독어교육과와 독일학과 등 유럽인문학 전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편성됐다. 해당 기금은 어

학연수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비용 등으로 지원된다.

전북대는 기부 내역을 바탕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을 김 이사장의 호를 따 ‘영산홀’로 명명했다. 소공연장은 ‘건지아트홀’로 운영 중이다.

전북대 교수 출신인 김 이사장은 “가진 것을 환원하라는 재단 초대 이사장(어머니)의 뜻에 따라 기부를 이어왔다”며 “문화회관이 지역 문화 중심지가 되고, 인문학 전공 학생들이 꿈을 꾸는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리모델링된 삼성문화회관을 지역 상생 거점으로 삼고, 기탁금은 인재 양성에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최성민 기자

<창간기획>

전북 늘봄학교, 초3 참여율 ‘전국 1위’

맞춤형 공간·행정 분리로 공백 지웠다… 참여율 72.5% 달성

올해 확대 시행된 ‘전북형 늘봄학교(온동네 초등돌봄·교육)’가 초등학교 3학년 참여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분격 도에 올랐다.

도농 복합 지역이라는 전북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농어촌 학교의 행정 부담은 교육청이 적극 지원하고 도심 대규모 학교는 유휴 공간을 대폭 늘리는 맞춤형 ‘투트랙’ 지원 전략이 수치적 성과로 입증됐다는 분석이다.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늘봄학교 누구나 이용 가능 학년인 초등학교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전격 확대됐다.

1·2학년은 1일 2차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단순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높은 3학년의 특성을 고려해 연간 최대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비우체)을 별도 지원한다. 예산 투입과 맞춤형 프로그램 정선은 즉각적인 참여율 상승으로 이어졌

다. 올해 1·2학년은 총 3,561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90.5%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특히 3학년은 4,876개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참여율이 지난해 65%에서 올해 72.5%로 7.5%포인트 상승해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실시된 늘봄학교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부모 92.3%, 학생 86.7%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성과의 핵심 동력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세밀한 인프라 지원을 꼽는다. 감사 채용 자체가 어려운 6학급 이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교육지원청이 계약, 예산 편성, 지출 등 모든 행정 서류 처리를 100% 담당하는 ‘올봄(AIU)학교’ 체제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2018년 14개교에서 출발해 올해 237개교로 대폭 확대됐다. 반면 늘봄 공간 확보가 시급한 대도시 대규모 학교는 겸용교실을 지난해 387실에서 올해 595실로 대거 늘렸다. 학년별 구실 37개교도 별도 지원해 대기 수요를 완전히 차단했다.

아울러 일선 교사들의 업무 전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해 100명, 올



<사진=전북교육청>

해 54명을 더해 총 154명의 늘봄지원실장 배치를 완료했다. 이들은 학교별 늘봄 업무를 총괄하며 인력 지휘와 민원 대응을 전담한다.

올해 전북 늘봄학교의 최종 정책 방향은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 개편이다. 전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돌봄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돌봄협의체, 도교육청과 도청 단위의 광역협의체로 이어지는 상향식 구조를 확립했다. 이 3단계 협의체를 통

해 장소, 인력,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자원을 전방위적으로 연계하고 공유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미래교육과 관계자는 “농어촌 학교의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전담하고 도심 학교의 공간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타개할 것이 높은 참여율로 이어졌다”며 “올해 새롭게 가동되는 3단계 상황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및 지역사회 자원을 전방위적으로 연계해 빈틈 없는 전북형 돌봄망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 ‘기초학력 선도학교’, 도내 목표치 절반 규모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실 내 학습결손을 막기 위해 정규수업에 교사 2명을 투입하는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도내 전체 학교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26일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지난해 99개교(전체 학교의 13%)에서 올해 369개교(50%)로 3.7배 늘려 운영한

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전체의 60%인 445개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초학력 선도학교는 정규수업 시간에 담임이나 교과 교사 외에 협력 교사(강사)를 추가로 투입하는 ‘1교실 2교사제’를 기반으로 한다. 교사 2명이 한 교실에 들어가 학생 수준과 특성에 맞춰 밀착 지도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우선 지정 대상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이 최근 3년간 뚜렷하게 증가했거나, 개별 지도가 어려운 농산어촌 및 과밀학급 등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올해 목표치의 절반가량인 180여 개 학교가 신청을 마쳤다.

최종 선정된 학교는 각 학교의 인력 여건에 따라 세 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

해 운영한다. 전문 교원이 담임과 협력 수업을 하거나, 협력 교사가 교과 수업과 기초학력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 또는 외부 협력 강사를 투입하는 형태 등이다.

최재일 전북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맞춤형 지도를 통해 학습결손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 한국도로공사 **축** 창간 15주년

행복한 여행의 시작!

안전띠

전 좌석 착용했나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 안전띠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 시 중상 위험 최대 9배 증가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Yes

<창간기획>

유가 충격과 산업 전환, 벼랑 끝에서 길을 묻다

에너지 의존 구조의 한계와 첨단 산업 경쟁 해법은 새만금에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은 국내 경제 전반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구조가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드론,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을 넘어 일부 영역에서 한국을 앞섰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다. 이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전북타임스는 이번 기획을 통해 위기의 본질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세계 경제가 다시 불만의 그늘 속으로 잠겼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은 단순한 외교 갈등의 수준을 넘어, 글로벌 경제를 흔들며 그 위험성이 쓰나미처럼 파급력을 높이고 있다.

중동에서 시작된 불안은 곧바로 국제 유가를 자극했고, 이미 상승세로 돌아선 에너지 가격은 전 세계 시장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문제는 이 충격이 일시적인 파동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지금,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위협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유가 상승은 곧바로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물류비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며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압박을 가한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에게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로 직결된다.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이는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며 경제의 체력을 갉아먹는다.

위기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응은 여전히 단기 처방에 머물러 있다.

유류세 인하나 보조금 확대와 같은 정책은 당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위기가 올 때마다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버티는 구조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는 에너지 체질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수입선 다변화와 전략 비축 확대는 기본이며,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는 구조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전력 중심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세계 산업의 질서가 이미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은 국가 차원의 전략과 투자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

며,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한국을 앞섰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쟁에서 기술과 데이터 중심의 경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성공 공식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첨단 산업은 속도의 싸움이자 방향의 싸움이다.

기술 격차는 단기간에 벌어지지 않지만, 한 번 벌어지면 따라잡기 어렵다. 전기차와 배터리는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산업이고, 인공지능과 드론은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기반 기술이다.

이 흐름에서 뒤처진다면 단순한 산업 경쟁력 약화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제 대응은 명확해야 한다.

핵심 기술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 그리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와 관행의 혁신이 필요하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전략까지 더해져야 한다.

특정 국가와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규칙을 설계하는 주체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유가 상승과 산업 전환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다. 하나는 현재를 흐르는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좌우할 경쟁이다. 그리고 이 두 흐름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이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가.

지금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는 경제 구조, 빠르게 추격해 오는 경쟁국, 그리고 아직 완전

히 전환되지 못한 산업 체계. 어느 하나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을 동반한다. 방향을 바로 잡고 과감하게 움직인다면, 위기는 곧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수많은 위기를 넘어 성장해 온 나라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속에서도 산업을 회복하며 다시 일어섰고, 그 경험은 지금의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으로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빠르게 결단하느냐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공간이 있다.

바로 새만금 산업단지다.

광활한 부지와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춘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실험장이자 전략 거점이 될 수 있다. 배터리,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가 결합된 미래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된다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단지 전북의 기회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에너지 구조를 혁신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이러한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해 나간다면 지금의 불안은 분명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벼랑 끝에 선 지금, 길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 길은 기다리는 자에게만 열려 있다.

/최준호 기자



<사진=정읍시>

남양부직포(주), 정읍 제3일반산단에 증설

총 72억 규모 투자

정읍시가 지난 25일 시청에서 제3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인 남양부직포(대표 채현병)와 72억원 규모의 공장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채현병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 1998년 설립돼 경기도 안산시에 본사를 둔 남양부직포는 필터용 부직포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현재 크린앤사이언스㈜ 정읍지점, ㈜성창오토텍 등 주요 고객사와의 안정적인 거래를 바탕으로 탄탄한 매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남양부직포(주)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제3일반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 부지에 3053.9제곱미터(m²) 규모 생산 시설을 증설한다.

이를 위해 총 72억원을 투자하고 13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 다. 공사는 오는 4월 착공에 들어가

2029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공장 증설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돌입하게 된다.

시는 최근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필터용 부직포 시장 전망이 전망되는 만큼 이번 투자가 지역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남양부직포(주)의 증설 투자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읍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채현병 대표는 "정읍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기업 경영 시 관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정읍시와 지속적으로 상생·협력하며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에스시디디(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41억 원 투자

3공장 신축 투자협약...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세 번째 투자를 이끌어내며, 기업 성장과 재투자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26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에스시디디(주)(대표 강병수)'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제3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에스시디디(주)는 김을 생산하는 식품

기업으로, 2018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제1공장을 준공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이어 2023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제2공장을 추가로 건립하며 생산 품목을 확대했고, K-푸드 수요 증가에 힘입어 해외 시장까지 판로를 넓히며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에스시디디(주)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3,426㎡ 부지에 총 41억 2,000만 원을 투자해 제3공장을 신축하고, 21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세 번째 투자를 결정한 것은 입주기업의 성장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입주기업의 성장이 지역 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본격화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지표로도 주목된다.

강병수 에스시디디(주) 대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다"며 "제3공장 건립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더

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 번째 투자를 결정해 준 기업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사무지원, 연구지원, 생산 지원 등 12대 기업지원시설이 집적화돼 있다. 이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과 마케팅, 판로 확보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TP '이차전지 산업' 기술지원

내달 3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2026년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비R&D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기술가치평가 △애로기술 컨설팅 △장비활용 △인증 △특허 지원 등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이차전지 소재, 재활용, 재사용 전·후방기업이다.

사업 수행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간이며 지원 기업은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최종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jbtp.or.kr>)를 확인하면 된다. /김명태 기자

추천 15주년

선운산농협의 웰빙지향 정직한 농민의 마음 브랜드입니다.

베리웰

최고의품질, 친절한 서비스 / 선운산농협 직접 운영

선운산농협협동조합

- 상임이사: 안성민 사외이사: 진기영
- 비상임이사: 류채상 김용자 김완식 나삼주 서금자 최형곤 김범진 박수정 라종이 김대열 이종면 김대진
- 비상임감사: 이종호 김대환

조합장: 김기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고창지역에서만 자란 복분자 생과에 선운산농협의 정성을 더했습니다.

1544. 1589
복분자 1번지 선운산농협
<http://www.berrywell.co.kr>

■ 본점: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상길 34	■ 아산시점: 아산시 녹두로 793	■ 공음지점: 공음면 공음길 55	■ 웰파크 지점: 563-7255	■ 농산물유통센터: 562-9644
- 시 무 실: 063)562-9604	- 시 무 실: 562-5007	- 시 무 실: 562-7888	- 팩 스: 563-7256	- 팩 스: 562-9654
- 팩 스: 063)562-9601	- 시 무 실(아간): 562-5126	562-7890	■ 선운사 지점: 561-3443	■ 선운산농협유주소: 562-9600
- 아나로마트: 063)562-9602	- 팩 스: 561-0955	- 팩 스: 564-6465	- 팩 스: 561-4257	- 팩 스: 562-9609
- 영농자재판매장: 063)562-9603	- 아나로마트: 562-5166	- 아나로마트: 562-7889	■ 복분자기공사업소: 564-5008	
- 농기계서비스센터: 063)564-9605	- 영농자재판매장: 564-9772	- 영농자재판매장: 562-5556	- 팩 스: 564-5078	

道, 2026년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 '본격'

77개 사업 추진 재해예방·생산안정 탄소감축 통합 대응

전북도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 TF회의를 열고, 농축산분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을 26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해 대응을 위한 실행과제와 기관 간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 시행계획'은 총 77개 사업에 4,080억 원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1,334억 원) △배수개선사업(600억 원) △원예분야 ICT 융복



합 지원(110억 원)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55억 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를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 안정성을 높인

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도 병행된다. 도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유기농업자재 지원,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 등을 통해 연간 8만7천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저탄소농업프로그램(34억 6,2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31억 6,500만 원)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29억5,000만 원)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 감축사업의 이행력을 높여 농업 분야 탄소중립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번 TF회의를 통해 확정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 재해 예방과 생산 안정, 탄소감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 맞춤형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점검해 농업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김제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정받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서 우수지자체 선정

김제시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차별화된 기업애로해소 및 기업지원 사책 추진·투자유치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는 전북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계획 수립,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추진 실적,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 도 중소기업 육성 시책 참여도, 기관장 관심도 등 17개 항목의 지표를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한다.

김제시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이번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2천만 원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해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 기

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부서별 기업전담제, 우수 외국인 유입과 관내 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더불어 △수출지원사업, △기숙사 인차로 지원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투자유치에도 전력을 다해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2월 지정 선산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을 이끌어 내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부 공모사업인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과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되어 수

요 중심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백구-지평선 제2 산단 조성을 통한 산업용지 공급 확대와 미래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을 집중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전북, 동물헬스케어 미래인재 키운다

산학관 협력 기반 구축 교육-산업-일자리 연계 강화

김관영 도지사가 26일 원광대에서 동물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전북대·원광대·익산시와 함께 산·학·관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급성장하는 동물헬스케어 분야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원광대학교 동물보건학과에는 약 54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두 대학은 전북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미래인재들과 함께 산업 현장의 수요와 진로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동물헬스케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산업 연계 강화 △현장 중심 교육 확대 △취업 연계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학생과의 대화'에서는 전북대가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을, 원광대가 현장 밀착형 동물보건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을 각각 소개했다.

이후 학생과 기업이 함께한 질의응답에서는 직무 역량, 취업 전망, 근무환경 개선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오갔다.

도는 익산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채용 연계형 인력양성 체계'를 본격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및 연구기관,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다져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북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며 최종 지정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0개 지자체 중 4개 지역만 선정된 것으로, 향후 최종 지정되면 첨단 동물용 신약 개발과 산업 집적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특구에는 13개 동물용의약품 기업이 참여할 예정으로, 향후 지역 이전이 이뤄질 경우 일자리 확대와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장정철 기자

김제시, '청춘 스페이스-업 프로젝트' 추진

멈춰있던 공간, 청년의 열정으로 다시 깨어나다

김제시는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창업공간 시설개선 사업 '2026년 김제시 청춘 스페이스-업(UP) 프로젝트' 참여자를 지난 25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부스터-업(UP) 프

로젝트' 중 '청춘 스페이스-업(UP) 프로젝트' 사업으로, 노후된 창업 공간의 환경 개선과 소규모 리모델링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창업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창업 아이템 특성 및 업종에 적합한 여건조성으로 청년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18~39세 청년(예비)창업 기업으로, 예비 창업자의 경우 협약 체결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사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김제시로 전입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점포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육외간판 설치, △보안 기능 개선, △결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창업 환경 개선을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운영 여건 개선을 지원할 계획으로, 참여신청 및 사업내용 확인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의 꿈이 지역에서 시작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전북농업기술원,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 교육 실시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고도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농장주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40명에 대해 교육을 추진했다.

농업기술원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기술원 내에서 농촌체험농장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 기초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운영자들이 아동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와 농촌 자원 발굴,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춰 지도력과 교육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

고 있다. 기초과정은 △농촌교육농장의 이해 △교육 프로그램의 개념과 개발 원리 등 총 9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이어지는 심화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안 작성 △농촌교육농장 운영 전략 등 실제 농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습 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초 및 심화 과정(총 3시간)을 모두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가 인증하는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는 총 41개의 농장이 품질인증을 획득해 운영 중이다.

/정혜민 기자

청정원 순창

축 창간 15주년

대한민국 장맛의 중심

한식을 높이
맛으로 깊이

청정원 순창 모델
안성재 셰프

정읍시,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30일부터 접수

정읍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이며,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4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1차 사업(2022년부터 2024년) 수혜자 가운데 지원 한도인 24회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혜택이 끊긴 청년들도 남은 회차에 한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청년 본인의 독립 가구는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위촉

군산시가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26일 노동안전지킴이 위촉식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자격요건과 실무 경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산업안전지도사 및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30년 이상의 산업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 2명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안전지킴이는 2인 1조로 구성되어 주 1-2회 활동하며, 군산시 발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민간사업장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현장점검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 관계자에게 개선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특별감독을 요청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입주 시작 '창업 꿈나무' 지원 나서

익산시가 통합일자리센터 내 창업 공간에 기업 입주를 시작하며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키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통합일자리센터 2층에 조성된 창업실 5개실에 대한 입주를 마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일자리센터 창업공간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무실이나 장비가 부족한 창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꿈을 펼칠 수 있게 지원하는 공간이다.

이번에 입주한 기업의 분야는 다채롭다. △맞춤형 석재 제작 △임신·출산 생활용품 등 익산의 특색을 살리거나 현대적인 감각을 담은 기업들이 모였다.

이 공간은 청년 창업가와 신중년 창업가가 함께 머물며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세대 협력형' 공간으로 꾸며져 더욱 의미가 깊다.

익산시 관계자는 "창업 공간은 도전하는 사장님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입주 기업들이 익산에 크게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K-시푸드 거점 '도약'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4만 평 추가 확보... 수산식품 거점 기대

군산시가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 가공 종합단지(이하 수산식품단지)를 확장해 글로벌 K-시푸드 선도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새만금국가산단 일원에 조성 중인 '수산식품단지'를 폭발적인 수요와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상부지를 기존 4만 평에서 8만 평으로 규모를 확대해 미래 수산식품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추가된 4만 평 부지는 기존 관리권한 위임을 통해 군산시가 직접 운영 및 입주 관리를 맡게 될 예정이며, 이로써 지역특화형 산업단지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사업단지의 입주, 공장등록 등 권한을 위임 받은 관리기관으로서, 지난해 11월 가공식을 개최한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를 비롯해 해수 인·배수시설 등 기반 시설과 공공지원시설, 민간기업의 개별적인 공사 진행 등 수산식품단지를 순조롭게 조성 중이다.



스마트수산가공종합단지 건립 조감도

<사진=군산시>

이와 더불어 수산식품 고차가공 업체 및 마린 김 가공공장 등 민간 수산식품 입주기업의 공사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새롭게 추가·확대하는 제2단계 수산식품 확산단지는 기존 수산식품단지와 연계와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기존 부지 옆 오식도동 1127 일원에 조성되며, 최근 미래 식품산업으로 주목받는 김 육상양식 기술 확산과 수산식품산업의 추가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수산식품단지는 지난 2023년 새만금 산업단지 내 2차전지 기업부지 수요 증

가를 이유로 새만금청의 요청 하에 사업부지가 기존 8만 평에서 4만 평으로 축소 조정된 바 있으나, 이후 지속적인 수산식품기업의 수요와 김 육상양식 확산 등을 감안해 관리기본계획 변경하고 약 8만 평 규모의 수산식품 집적화단지로 확대·조성되는 것이다.

수산식품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고용 창출은 물론, 새로이 조성되는 새만금 신항과의 연계로 통한 수출중심 클러스터 성격의 수산식품 집적화단지로 K-수산식품 산업의 글로벌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지역 중심 통합돌봄 본격화

의료·요양 통합돌봄 47개 서비스 연계 시행

익산시가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노인과 장애인이 자택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인이다. 대상자 또는 가족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 전담장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 등을 조사하고, 개인별 맞춤 돌봄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시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일상 돌봄, 주거환경 등 5개 분야 47개 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특히 △가사지원 △반찬·영양식 지원 △외출 동행 △방문 재활 △주거환경 개선 △건강생활용품 지원 등 지역 특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글로벌 상생 포용도시' 비전 확정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42개 사업 추진

군산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시장(위원장) 주재로 '2026년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상생 포용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확정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올해 추진할 '2026년 군산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의지를 다졌다.

지난해 군산시는 '서로 다른 We, 함께 하는 We, 글로벌 성장도시 군산'을 비

전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체류 외국인 수 1만 1493명을 기록하며 당초 목표였던 11,500명의 99.9%를 달성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주요 성과로는 △지역 기반 비자로 변경한 외국인 대상 지원금 지급 △농·수산분야 계절근로자 지원 운영을 통한 인력난 해소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등 실질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외국인 주민 비율 5.85%, 체류 외국인 12,800명 달성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약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략적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환경 개

선을 통한 정착 지원 △상호 존중 기반 사회통합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4대 전략 아래 총 42개의 세부 사업을 고도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군산시 외국인주민수는 2024년 11월 1일 기준 14,257명으로 군산시 총 인구 265,473명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민 부시장은 "단순한 인력 유입을 넘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정착하고, 내국인과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지향농업시스템, 중요농업유산 지정 기념식 성료

전통 농업 가치 확산 및 보전 필요성 공감대 형성

정읍지향농업복합사업단이 정읍 지향 농업시스템의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26일 옹동전통문화생활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며 전통 농업의 가치 확산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정읍 지향이 가진 오랜 역사성과 전통 농업 기술, 지속 가능성 등 농업 유산으로서의 탁월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체계적인 보전 필요성에 대한 지역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시 관계자, 지역 농업인, 유관 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목축·전통을 지켜온 재배 농가와 유통·가공 분야 종사자 등 정읍 지향 산업 발전에 오랫동안 헌신해 온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정읍 지향 농업시스템은 조선 전기부터 이어져 온 재배 역사와 지역 주민의 생계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이번 지정으로 확보한 국비 1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4억 3000만원을 투입해 전

통 재배 기술의 체계적인 기록·전수, 정읍 지향 유전자원 보존, 지향 관련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전통 농업의 명맥을 잇기 위한 다각적인 기반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 지향 농업시스템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은 현장에서 땀 흘린 지역 농가들의 오랜 노력과 정읍 지향 고유의 역사적·전통적 가치가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중요 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폭넓은 활용을 통해 정읍 지향의 산업적 가치와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정읍시, 적극행정 평가 '우수기관' 선정

5년 연속 수상 영예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시민 체감 성과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해당 평가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우수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탁월한 행정 역량을 확고히 증명했다.

시는 그동안 '시민 체감형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적극행정 매뉴얼·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우수 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우수 사례 홍보 등 다채로운 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점검에서 나란히 장관상을 받는 등 추진 성과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학수 시장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을 묵묵히 실천해 온 정읍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만들어 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38건 안건 의결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26일 제 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제9대 의회의 그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회기였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추진 동의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소길영 의원 - 익산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촉구 △정영미 의원 -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집행부의 적극 행정 촉구 △최재현 의

원 - 모현·송학 침수 위험, 익산시의 적극적 대응 촉구 △송영자 의원 - 익산시 무인매장 관리 사각지대 실태조사와 안전점검 촉구 △신용 의원 - 부송4지구 입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공동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촉구 △김충영 의원 - 의회추진중과 시민중심 행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경진 의장은 "제9대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때로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면서 언제나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왔다.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시민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걸어온 시간은 분명 소중한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의료원 전경 <사진=군산의료원>

군산의료원, 지방의료원연합회 '이사회·총회' 개최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본관 3층강당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제158차 '이사회' 및 '제113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원장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의료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의료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 강화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6일에는 이사회와 총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전국지방의료원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최근 공공보건의료 주요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적용 방안과 지방의료원의 정책 수가 관리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진다.

이어 27일에는 군산의료원 병원 라운딩 및 기관 소개, 의료원장 간담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각 의료원 간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관심 현안에 대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농촌 크리에이티브 3년 연속 선정

익산시가 차별화된 농촌관광 콘텐츠로 미식과 체험, 숙박을 연계한 관광 확대에 나선다.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은 농촌 관광 운영 주체가 여행사 등과 협업해 지역 특화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익산시는 2024년과 2025년 사업을 통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자원, 축제, 미식, 숙박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운영하며 전국 관광객의 호응을 얻어왔다. 시는 올해 농촌관광객 2,300여 명과 외국인 관광객 450명 유치를 목표로 농촌 크리에이티브 사업을 추진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만의 특색 있는 농촌관광과 미식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군, 적극행정 3년 연속 '우수'

민간위원 평가등 12개 지표서 우수평가 지역 복지망 구축 호평

고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정부들 대상으로 실시된다. 일반국민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제도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제감도 등 5대 항목 18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고창군은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창출 노력, 제도개선 노력, 적극행정 우수사례 민간위원·국민평가 등 12개 세부지표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간위원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만월어촌계 대체어장 개발'은 대표사례로 꼽혔다.

군은 원전 온배수 보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주식 김 양식을 지키기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확대된 200ha 규모의 대체어장을 확보해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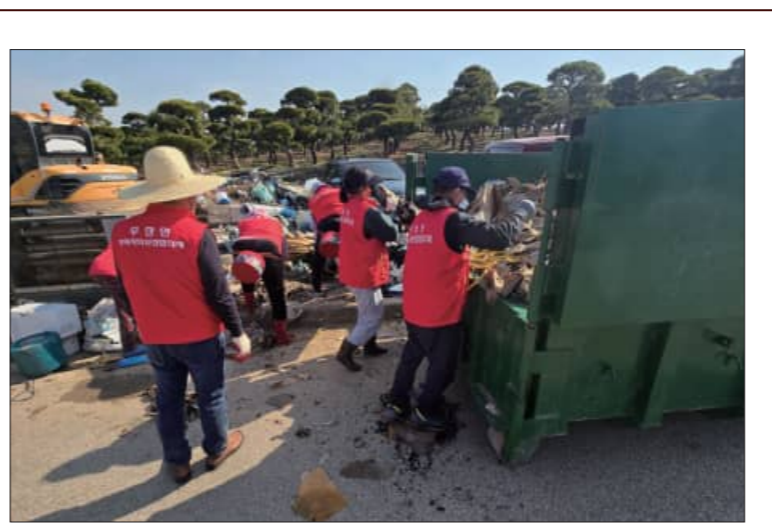
또한 국민평가단의 호평을 받은 '고

창군 우리동네 복지보안관 사업'은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창의적 복지모델이다.

85명의 보안관이 마을 곳곳의 위기 징후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로 연결했고, 고독사 예방 등 촘촘한 지역 복지망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3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선제적 행정을 강화하겠다"며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고창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고창군>

고창 무장면, 10년 묵은 도로 적치물 제거

민·관 협력 '안전 사수'

고창군 무장면(면장 강필규)이 10여 년간 강남리 일원 도로를 무단 점유하며 주민 안전을 위협해 온 거대 폐기물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약 991.7㎡(약 300평) 규모의 고물과 쓰레기가 도로 중앙까지 침범하며 야간 교통사고 위험 및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후 고창군 관련 부서 간의 전격적인 협력이 뒤를 이었다. 건설과는 장비와 예산을 투입해 대청 적치물을 걷어냈고, 환경위생과는 방치 쓰레기 처리 예산을 통해 수백 톤의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했다.

특히 무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류창현)는 중장비 작업 후 도로 주변에 남은 미세 잔해물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거했다.

류창현 민간위원장은 "기계가 닿지 않는 곳까지 우리 위원들이 정성껏 마무리해 깨끗해진 도로를 보니 매우 보람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무장면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강필규 무장면장은 "이번 준비는 단순 환경 정화를 넘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력해 준 부서와 위원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집중 점검

정화영 군수 권한대행, 엄정 대응 지시

부안군은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비롯해 소하천, 세천, 구개, 산림 내 계곡 등 전반에 걸쳐 불법 점유 시설에 대한 집중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6일,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 TF단장인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이 직접 하천 단속에 나서 불법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중점관리 하천인 주상천 대교 인근과 영은천 삼간교 인근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하천구역 내 시설물 설치, 자재 적치, 불법 경작 등 불법 점유 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현장에서 불법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원상복구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26일 정화영 군수 권한대행이 하천 불법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부안군>

군은 불법 행위 적발 시 즉시 1·2차 계고를 거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화영 권한대행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한국청과, 김제시에 고향사랑기부

박상현 대표이사, 1천만 원 기탁

김제시는 26일 한국청과 박상현 대표이사가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2년 연속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1979년에 창립한 한국청과는 농산물유통산업 발전에 매진해 온 도매시장법인으로 소의계축 및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물품 나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산불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박상현 대표이사는 "김제시에서 돌

봄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서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을 준비한다고 들었다"며, "아이를 키우는 분들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생긴 육아 공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지정기부사업으로 기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를 위해 올해도 큰 금액을 기부해 주신 박상현 대표이사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돌봄센터가 차질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

시설 현대화 재활용품 선별 성과 증가 기대

김제시는 26일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장을 대체하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성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과 서백현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관련기관, 자원순환전문가,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생활자원회수센터는

기존 재활용선별장의 시설 노후화와 선별 효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1억 5,200만 원을 투입해 건축면적 1,337.37㎡, 지상1층 규모로 건립됐다.

시설은 하루 10톤 규모의 재활용품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 시설은 광학선별기와 압축기 등을 갖춘 현대화된 기계설비를 설치했다.

그동안 기존 재활용선별장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작업환경이 열악해 효율적인 재활용품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으로

재활용품 선별 효율이 향상되고 작업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신 선별 기계설비 도입을 통해 재활용품 처리 능력을 높이고 폐기물 갈라 및 자원 재활용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은 노후된 재활용선별장을 대체하는 의미 있는 사실로, 김제시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재활용 활성화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블로그, 누적 방문자 5백만명 돌파

일 평균 1천여명 방문 소통 창구로 자리잡아

전북 고창군이 운영하는 공식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500만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최고의 주민소통창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고창군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는 500만1300명으로, 2013년 5월 첫 개설 이후 만 13년 만에 5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일평균 블로그 방문자수는 1200여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다.

군은 공식블로그가 네티즌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은 '시기별 맞춤형 홍보'가 주요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창군 공식블로그 방문자 수 500만명 돌파 <사진=고창군>

고창군은 올해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 직업, 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물들로 블로그기자단을 위촉하고, 문화·관광·일상 등 다양한 주제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김영섭 고창군청 균정홍보팀장은

"앞으로도 페이스북, 유튜브 등 트렌드에 맞는 뉴미디어를 통해 고창군 정책과 정보를 잘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법제교육 실시... 신뢰 행정 기반 마련

부안군은 26일과 27일 2일간 직원들의 법적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중심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 전반에서 요구되는 법령 해석 능력과 자치법규 입안·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각 부서 실무자 및 처연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초 법령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과정은 법령 입안 절차,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업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돼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제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부안군일자리센터 일자리 서포터즈 총 8명 위촉

부안군일자리센터는 지난 25일 지역 내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8명의 서포터즈는 일자리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이 가능한 참여자들로 관내 6명과 관외 2명으로 구성됐다.

서포터즈는 센터와 함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홍보, 구인·구직 정보 제공, 구직자 면접비 지원, 동행면접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블로그와 SNS 등 온라인 채널은 물론 현장 방문 등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해 지역 일자리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센터는 지역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핀셋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신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지역 고용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연근 센터장은 "서포터즈는 센터와 군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가교이자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유용한 일자리 정보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 소양교육

김제시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지난 24일,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김제시를 대표하는 우수자원봉사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우수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특목도서관 김승수 관장이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자원봉사-우리 함께 자라기, 우리 함께 잘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자원봉사의 결과보다 실천하는 과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활성화된 관계를 회복하고, 봉사자 스스로의 행복 또한 중요하다는 강연 내용은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한 참석자는 "나의 즐거움이 진정한 나눔의 시작이라는 점을 깨달았고, 공동체를 위해 다시 한번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소양교육은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내적 동력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위기가구 신속 지원 위한 읍·면 담당자 직무교육

고창군이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24일 고창군보훈회관에서 읍·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의 전 과정을 중심으로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절차와 주요 사례를 공유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양한 위기 상황별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한 판단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수목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공무원들의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군 '기본소득' 지역경제 선순환 시동

제1차 기본소득위원회 개최 지급 3주 만에 사용률 83% 기록 33억 지급 중 28억 지역내 소비

순창군은 지난 2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순창군 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소비 선순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조광희 순창부군수를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 △2026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 △기본소득 소비패턴 분석 결과 및 선순환 방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논의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난 2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시범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군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6일 첫 지급 이후 약 3주간의 소비패턴 분석 결과도 보고됐다. 전체 지급인원



<사진=순창군>

22,601명에게 총 33억 9천만원이 지급된 가운데, 이 중 약 28억원이 사용돼 지급액 대비 83%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읍 지역이 54%, 면 지역이 46%의 사용률을 보였으며, 업종별로는 음식점·마트 등 기타 업종(55%), 5대 업종(23%), 주유소(11%), 농협(9%), 편의점(2%) 순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번 소비패턴 분석을 토대로 면 지역의 가맹점 부족 등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안에서 실질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다.

△민·관 협력 찾아가는 배송 서비스(온정장터) 운영 △순창행복몰 연계 마를 배송대 운영 △기본소득 순환마켓 조성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라인 장바구니 마켓 운영 △기본소득 착한가게 인증제 도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농산물 판로 개척, 생활서비스 기반 강화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협·협동조합·자활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원료 수급 불안 속 종량제봉투 안정화

국제 정세에 선제 대응 조치 추가 제작 통해 연간 물량 확보

남원시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 원료 수급 여건의 악화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를 추가 확보하는 등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기존 계약업체의 종량제봉투 생산 차질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제작이 가능한 업체를 확보해 종량제봉투 공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필수 물품으로, 시는 추가 제작을 통해 올해 소요 물량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원료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

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 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생산·공급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비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현재 종량제봉투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과도한 구매를 자제해 주시고,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종량제봉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 상시 점검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만경강 관광 거점 '생태주차장' 순항

187억 투입 1천대 규모 주차 도시숲 결합 친환경 공간 조성

완주군이 만경강 일대 이용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말 봉동읍 구만리 일원 사업부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사업에 착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7억 원(군비 전액)을 투입해 약 6만 9,883㎡ 규모로 조성되며, 완공 시 승용차 953대와 대형차 47대를 포함해 총 1,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만경강 일대는 자전거길과 산책로, 체육시설 등과 연계되며 군민과 방문객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주차 인프라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이용 불편이 지속돼 왔다.군은 이번 생태주차장을 통해 분산된 주차 수요를 체계적으로 흡수하고, 만경강 전 구간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생태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을 넘어 친환경 요소를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산림청 '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주차장 내외부에 녹지와 습터를 함께 조성하고, 수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설계 단계부터 환경적 요소를 반영해 생태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박차'

읍면센터 통합지원창구 마련

완주군이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을 전격 시행하며,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전국 시행 일정에 맞춰 본격 가동되는 것으로,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군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정든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복지 모델이다.

군은 군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통합지원창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대 상차 발굴 △종합 상담 △서비스 연계가 일원화된다. 기존에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읍·면 중심의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시범사업 기간을 본사업 시행을 위한 점검 및 기반 조성 단계로 삼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재 정비했으며, 이번 본사업 시행을 기점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지원 대상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이다.

특히 군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방문 진료 및 간호 등 의료 서비스 △재가 급역 및 방문 요양 등 요양 서비스 △식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시군구연고 육성 참여 바이오기업 모집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사업비 생산환경개선 신규 도입

(재)남원시사이오산염연구원(이사장 최경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20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2차년도 참여기업을 오는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는 부처협업 프로젝트로,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남원시사이오산염연구원과 (사)캡티브종합기술원이 공동 수행한다.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층 지역 유입 촉진을 목표로 추진된다.

앞서 진행된 1차년도 사업에서는 남원시 소재 바이오기업 16개사가 참여해 총 33건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그 결과 △특허 출원·등록 3건 △인증 3건 △사업화 매출 30억 원 △신규 고용 18명 △신규 거래처 11건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그린바이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입증했다.

올해 시작되는 2차년도 사업은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바이오소재 산업의 전·후방 연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고부가가치

화 컨설팅 △시제품 제작 △제품 리뉴얼 △시험분석 △인증획득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 △기술 컨설팅 △패키지 사업화 △공정개선 등이다.

특히 올해는 '생산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탄소 저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정 및 생산 현장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 및 세부 공고는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 관리시스템(smtechgo.kr) 'RMS 사업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난개발 막는다...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계획관리지역 60%·26km² 대상 주거·산업·복합·일반형 세분화

완주군이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이번 지정은 개발 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정 규모는 완주군 계획관리지역 면적의 약 60%에 해당하는 487개소(26km²)다. 군은 지역 특성에 따라 구역을 주거형(154개소, 8km²), 산업형(28개소, 2km²), 복합형(124개소, 10km²)과 일반형(181개소, 6km²)으로 세분화했다.

성장관리계획에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부터 건축물 용도, 환경 및 경관계획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특히 완주군은 기존 용도지역 규제는 유지하되, 군이 제시한 권장사항을 이행할 경우, 건폐율(최대 10%)과 용적률(최대 25%) 특전을 제공할 방침이다.

유히태 완주군수는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인센티브를 통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획했다"며 "해적하고 경쟁력 있는 완주군의 미래 가치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른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은 2026년 3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대상 지역 내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는 해당 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승화원 자연장지 내 '부부장지' 도입

수요 증가 반영...사용기간 40년 285기 규모 친환경 장지 조성

남원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승화원 자연장지 내 '부부장지'를 새롭게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부부장지 조성은 최근 급증하는 부부 단위 안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자연 친화적인 장사 문화를 확산해 선진 장묘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됐다. 시설은 남원시 승화원(남원시 솔터길 40-36) 내 자연장지 일부 구역에 총 388.3㎡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285기를 안치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법률상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부부 각자가 다음 요건 중



<사진=남원시>

하나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은 △사망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 △남원시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남원시 승화원에 안치된 유골 △남원시 명예시민으로 위

촉된 자 등이다. 사용 기간은 40년으로 연장 불가하다. 사용료는 부부장 1기당 100만 원이며, 비석 설치 비용 35만 원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청년농 지원 확대 나서

청년농 초청 현장 소통 간담회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김민수)는 26일 순창지사 대회의실에서 지역청년농업인을 초청해 청년농소통합의체를 구성하고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순창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2명이 참석해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영농초기 자금 부족, 경작농지 확보의 어려움, 농지은행사업 이용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등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했다.

순창지사는 2025년 농지은행의 '맞

춤형농지지원사업' 및 '농지임대수탁 사업'을 통해 전체 367농가에 156ha를 지원했으며, 이중 53명의 청년농에게 32ha를 지원하여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지원했다.

올해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공공인대용 농지임대사업, 농지매매지원사업, 선인대후매도시업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수 지사장은 "청년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도심 환경개선 본격화 빈집철거 지원사업 대상지 모집

남원시가 도심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정주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심지역 빈집철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총 13동의 빈집을 대상으로 약 3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동 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위치한 빈집으로 한정하며, 사업 대상으로 확정되면 남원시가 직접 철거를 시행한다.

특히 시는 철거가 완료된 부지를 3년간 공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활용 방식은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공용 주차장이나 주민 공동 텃밭 등으로 조성해 인근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빈집 방치로 우려되는 범죄 발생 및 우범지대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도심 내 방치된 빈집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돈된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사업은 예산 및 물량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 접수하며, 신청 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4월 6일까지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운영

순창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0,005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다음달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순창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특성을 재차 확인하고, 주변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도 동일한 기간에 운영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상담 등 안내는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251-2201)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근거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열람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공동육아 역량 강화 '돌봄 품앗이' 활동가 양성

완주군가족센터(센터장 신향) 공동육아 나눔터가 돌봄 품앗이 회원 가정을 대상으로 '활동가 양성 교육'을 진행하며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지역 사회 돌봄 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부모들이 육아를 함께 나누는 '돌봄 품앗이' 활동의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마련했다.

교육은 △활동 취지 및 운영 안내 △활동 계획 및 일지 작성법 △활동 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여 부모들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공동육아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활동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부모는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부모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신향 센터장은 "돌봄품앗이는 이웃이 서로 돕는 지역 공동체 활동으로, 앞으로도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임실군, 농촌크리에이티브 공모사업 선정

임실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농촌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농촌크리에이티브 사업은 농촌의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의 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포함한 민간 공동협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실군에서는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소가 참여하는 (사)임실군농촌체험관광협의회와 여행전문가로 구성된 '임실농촌관광 공동협의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특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임실N농촌탐구생활'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숙박·음식 자원과 지역의 관광자원, 사계절 축제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최대철 배우,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 기탁

최대철 배우가 지난 25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 원을 기부해 훈훈함을 전했다.

최대철 배우는 현재 KBS 주말드라마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에서 '공대한' 역할로 열연 중으로, 무주군과는 안성면에 자리한 농업회사법인 ㈜포토(베도라지즙, 홍삼, 천마 제품 등 건강식품 생산업체)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인연을 맺고, 2년째 '고향사랑 무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최대철 배우는 "무주에 애정이 깊은 만큼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라며 "따뜻한 마음을 담은 기부금이 무주군민을 위해 크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기부금 전달식 후에는 무주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짧은 영상 촬영에 응하며 '산불 조심' 메시지 전달에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관광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 4월 5일까지

(사)진안군관광협의회가 지역 관광 활성화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해 '2026 진안관광 비즈니스 아카데미(마이 아카데미)' 2기 교육생을 오는 4월 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진안의 상징인 '마이산(MAISAN)'과 '나만의(MY)' 비즈니스를 만든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진안군의 열린 관광 교육 브랜드 '마이(MAD)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처음 운영된 1기 과정이 관광 트렌드 이해와 컨설팅, 사업 아이템 발굴 중심의 기초 교육이었다면, 이번 2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실습 중심의 심화 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모집 대상은 진안군 내에서 관광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나 현재 관광 사업을 운영 중인 주민 및 청년을 비롯해 진안 관광 활성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교육 중 개인 노트북을 활용할 실습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인 PC 활용 능력은 갖춘 자여야 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적극행정 4년 연속 '우수'

행안부 주관 '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장수군이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역량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군은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군민 체감도, 우수사례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장수군은 전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지속가능한 행정혁신 역량을 인정 받았다.

특히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 사례가 빛을 발했다. 보건지소와 약국이 인접한 의약분업지역인 산서면에서 약국 운영 공백이 반복되자 보건복지부에 의약분업 예외지정을 적극 건의해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높은 평가의 건언자 역할을 했다.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 체질 개선 노력도 돋보였다. 군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극행정 면책보호제도 도입,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왔다.

군은 앞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군부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도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최훈식 군수는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은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고민하고 행동한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행정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여성 일자리 창출' 나서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체결

무주군에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나서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6일 주식회사 떡갈나무 등 지역 내 15개 기관·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참여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여성 인력 고용 확대,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주군 '여성친화 일촌기업(2021년~)'은 올해 신규 기업 7곳을 포함해 총 15개 기업이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 등록돼 있으며, 이들 기업은 전



북특별자치도와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원하는 △새일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인턴십 지원,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기업체 워크숍, △기업 환경 개선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여성 일자리 정책을 펼쳐

<사진=무주군>

업과의 동행이 지역 내 여성 일자리 확대에 더불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의 길을 터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여성 일자리 정책을 펼쳐

나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도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 센터와 함께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소속 직원 대상 '승용차 5부제' 시행

에너지 위기 경보 '주의' 단계 발령

임실군이 에너지 위기 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절약 강화 지침에 맞춰, 지난 25일부터 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용차 5부제 적용 대상은 임실군청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임실군 산하 모든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차량이다.

군은 공직사회의 숭선수범을 통해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운행 제한 방식은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적용되며, 이번 지침에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예외가 포함된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무공해차, 장애인 차량 등은 승용차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홍보를 병행하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은 제도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복무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숭선수범하여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의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달빛철도장수역 유치 촉구 결의안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25일, 제38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달빛철도장수역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결의했다.

이번 결의는 영·호남을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남부 내륙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장수군 범암면 외곽을 스쳐 지나가도록 설계돼 정작 장수군민이 사업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일제강점기 수원광산이 운영될 만큼 풍부한 자원을 지녔으며, 장계면 오동리에는 과거 대전-한양-대구-부산을 잇는 철도 터널 굴착지가 존재하는 등 철도망 구축의 역사적 기반을 가진 지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철도가 통과하지 않아 인구 2만 명 규모의 '철도 불모지'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역 소멸을 가속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된 전주-김천 내륙철도 사업을 재검토하고, 진안역과 장수역을 연결하는 지선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북 동부권의 교통망을 완성하고, 국가 철도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 국제행사 대응을 위한 전략 거점 확보 차원에서라도 철도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장수역과 진안역이 연계될 경우, 생활권 확장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의회는 철도 인프라 확충이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국가 균형발

전의 상징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장수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달빛내륙철도 노선에 '장수역'을 즉각 확정할 것. △국토교통부는 전주-김천 내륙철도 사업을 재검토하고, 진안역과 장수역을 잇는 지선 연결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 △정부와 관계 기관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철도 인프라 구축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

장수군의회는 "장수역 설치의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며, "군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임실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3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우 차량과 5등급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유모차) 등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신청은 지난 3일부터 시작해 예

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군청 환경보호과, 각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 종합진산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시 추가 보조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반면,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를 신차 또는 중고차로 구매할 경우에 한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현장 점검

청년·신혼부부 등 정주여건 개선 공공임대주택 조성 본격 추진

장수군은 지난 25일 계북면 어전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참샘골 행복주택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공사 전반을 점검했다.

'참샘골 행복주택 조성사업'은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2024년부터 총사업비 약 58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2,396㎡, 연면적 1,356㎡ 규모로 지상 4층, 총 18세대 연립주택으로 조성되고 있다.

주 대상은 농촌유학생 학생·학부모를 비롯해 계북면에 거주하는 청년, 신

혼부부, 고령자 등으로 구분해 모집할 예정이다.

장수군은 이번 행복주택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사는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군은 진입도로 확장 및 회전교차로 설치, 보행 안전시설 강화 등을 설계에 반영해 주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 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마을 '저탄소 영양돌봄사업' 확대 추진

임실군에서는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이사장 전종대)와 한국저탄소식생활협회(회장 김규림)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저탄소 식생활 교육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결합한 지역형 영양돌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실군은 앞서 2025년 청용면 흥촌 마을에서 30주 과정의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저탄소 식생활 교육, 채소 중심 조리 실습, 걷기 활동, 건강 측정 등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임실군과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 대상 마을을 2개소로 확대하고, 20주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채소 중심 식단과 걷기 등 건강관리 활동,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의회,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가결

한국회의원 발의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2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발생하는 군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복용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군민의 기초적인 의료 기본권을 보장하고, 향후 장수군 내에 공공심야약국이 원활하게 도입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가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지역 내 약국 및 관련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군수의 책무와 적극적인 홍보 방안도 조례에 담았다.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맞춰 일일 최소 3시간 이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수의 철저한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했으며, 운영 실태가 저조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엄격한 사후 관리 체계도 포함됐다.

/장수=최진수 기자

한다경, 한국新으로 AG 간다...전북 수영 '쾌거'

자유형 800m 8분35초62 기록 자신 최고기록 1초16 단축 성과 이승은도 개인혼영 1위 동반 선발

‘한국 여자 수영 간판’ 한다경이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경북 김천에서 열린 ‘KB금융 코리아 스위밍 챔피언십(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전북원소포드단 소속 한다경과 이승은이 1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나서게 된다.

초62를 기록해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 기록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세운 자신의 기록을 1초16 앞당긴 것이다.

한국 신기록 달성과 함께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확보한 한다경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2022 항저우에 이어 3회 연속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나서게 됐다.

한다경과 함께 개인 혼영 200m에 출전한 이승은 역시 자신의 최고기록(2분13초48)을 작성하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

도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시안게임에서도 한국 수영의 저력을 보여



사진 우 한다경, 좌 이승은 선수

<사진=전북도체육회>

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소포드단은 전북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운동팀에게 정체성과 통일성을 주

고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명칭 공모를 통해 이름을 정했다.

/장정철 기자



<사진=고창군>

이정윤 금메달...고창 3년 연속 국가대표 배출

78kg급 우승 국대 선발 확정 고창군청 유도부 성과 이어가

고창군청 소속 이정윤(78kg이하급) 유도선수가 충남 보령종합체육관 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2026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이정윤 선수는 16강에서 한국체육대학교 선수를 상대로 업어치기 절반승, 8강에서 포항시청 선수에게 허벅다리걸기 절반승, 준결승전 경기에서는 동해시청 선수를 상대로 업어치기 유효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경남도청 선수와의 결승전에서는 상대 선수의 반칙패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작년초 고창군청 여자유도부에 영입된 이정윤 선수는 지난 1차 선

발전에 이어 이번 2차 선발전에서도 메달을 획득하는 등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올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고창군은 2024년~2025년 박은이 선수(개명 박서윤)의 국가대표 선발에 이어 2026년 이정윤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됨으로써 3년 연속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고창군청 여자유도부를 이끄는 이지연 경기지도자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열린 전국대회와 각종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1고창군수는 “앞으로도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임실군, 전국노래자랑 뜬다...치즈테마파크 ‘들썉’

28일 치즈테마파크 장미원 무대 3천명 관람 대비 안전관리 총력

임실군이 많은 기대 속에 준비해 온 ‘KBS 전국노래자랑 임실군편’이 오는 주말인 28일 오후 2시에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마련된 대규모 가요행사로, 지역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임실의 대표 관광지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 접수기간동안 군청과 12개 읍·면사무소에는 문의가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군은 관내 유관기관과 학교,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펼치며 전 세대가 함께 하는 참여형 행사로 준비했다.

지난 3월 26일 임실군민회관에서 열린 예선을 통해 선발된 최종 15팀이 본

선 녹화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끼와 재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본선 무대는 사회자 남희석의 진행으로 펼쳐지며,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공연과 함께 김성환, 안성훈, 양지은, 황민우, 엄유리 등 국내 정상급 인기가수들의 축하무대가 더해져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궈줄 전망이다.

특히, 본선 무대가 펼쳐지는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은 총 200여 중, 2만 2,000여 주의 장미가 식재된 공간이다.

약 2만 7,000㎡ 규모의 ‘사계절 장미원’과 3만 8,700㎡의 ‘유형형 장미원’은 플라워가든, 러블리가든, 로맨틱로드, 장미로드 등 테마별 공간과 이국적인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은 오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될 2026 임실N장미축제의 대표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이번 녹화행사에 맞춰 방문객들

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비올라, 팬지, 아네모네 등 대표적인 봄꽃을 추가 식재해 행사장 전역에 화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막걸리 또한 준비된다. 푸드트럭을 통해 피자, 치즈돈까스 등 치즈 먹거리와 치즈테마파크내 한우 및 레스토랑 등에서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임실치즈 유제품 등도 판매된다. 또한, 노래자랑도 구경하면서, 치즈테마파크 내 치즈역사문화관과 4D영상관, 바람의 언덕, 치즈체험관, 미끄럼틀 등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3천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행사장 전 구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관람 동선을 체계적으로 분리하는 한편,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 관리 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사진=임실군>

또한, 만일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와 의료지원반을 상시 대기시키고, 주차안내 및 교통통제 인력을 집중배치해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심민군수는 “행사를 통해 5월 개최 예정인 임실N장미축제로 이어져 임실이 천만 관광객이 찾는 명품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서해환경, 새만금마라톤대회 코스 환경정비 ‘총력’

오는 4월 5일 열리는 ‘2026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를 앞두고, 군산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업체인 ㈜서해환경이 마라톤 코스 전반에 대한 환경정비에 나서며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마라톤 동호인들에게 색다른 주경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코스가 일부 변경되었다. 특히 ‘금강하구둑 사거리’에서 ‘최호장군 교차로’에 이르는 구간은 자동차도로가 포함된 만큼, 노면 상태가 선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구간으로 꼽힌다.

해당 구간은 평소 차량 통행량과 속도가 높아 일반적인 청소 작업이 매우 까다롭고 위험한 곳이다.

서해환경은 이번 대회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적극 투입해 도로변 모래 및 각종 이물질 제거, 가드레일 주변 넝쿨 정리, 인근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했다. 특

히 선수들의 발목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작은 파편까지 꼼꼼히 정비하며 안전 확보에 힘썼다. 이 같은 정비 작업은 참가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서해환경 관계자는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 방문하는 마라톤러들이 군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작업에 임했다”며 “작업 여건이 까다로운 자동차도로 구간도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 대회 당일까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환경은 군산시의 청결을 책임지는 향토 기업으로, 매년 주요 행사마다 환경 정화 활동과 사회공헌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마라톤대회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을 위한 든든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봄밤 미식·공연...은파 벚꽃야시장 개최

군산시가 흐드러지는 벚꽃의 향연과 함께 미식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은파호수공원 벚꽃야시장’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오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16일간 은파호수공원 제1주차장 옆 수변무대 일원에서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색 체험, 풍성한 먹거리를 마련해 시민

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공연 프로그램은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기간 중 금·토·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은파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총 23회 진행된다. 브라스밴드, 색소폰 연주, 노래·댄스 공연,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져 방문객들에

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막걸리 부스는 행사 전 기간 동안 운영되며, 분식, 파스타, 김밥, 음료, 주류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14개 부스가 참여한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벚꽃마켓’도 함께 운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스탬프투어와 ‘플레이 워드 코스프레’ 등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가

마련되며, 지역 수제맥주 판매와 함께 ‘군산 시민맥주’ 신규 출시도 예정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행사 운영 관계자는 “벚꽃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 콘텐츠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도, 아이돌봄 자격제 시행...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확충 추진 안정적 돌봄 인력 공급 기반 강화

전북도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돌봄 전문인력 50명을 양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제1차 아이돌봄 인력양성교육을 운영해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자격제 시행 이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이돌봄사는 국가자격 '아이돌봄사'로 전환되며, 서비스 전문성과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사는 가정 방문해 아동 돌봄과 안전관리, 놀이활동 등을 수행하는 국가자격 돌봄 인력이다.

올해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이 시행되면서 서비스 이용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는 선제적인 인력 양성을

통해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공공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은 응급처치, 아동 발달, 놀이 지도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선 채용-후 교육'과 '선 교육-후 채용'을 병행해 즉시 투입과 중장기 인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돌봄비를 파견하는 방문형 돌봄 서비스로, 시간제(기본·종합형), 영아종일제 등 유형에 따라 운영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이

차등 지원된다.

현재 도내에는 전북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 전주·군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3개 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며, 도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관 추가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가 맞물린 중요한 시기"라며 "양성된 인력이 현장에서 신뢰받는 돌봄 인력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청년예술 퀵' 참여 예술팀 및 기업·기관 모집

각각 내달 6일·2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은 '2026 청년문화예술 주문배달서비스(이하 청년예술 퀵)' 공연팀과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예술 퀵은 문화예술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근로자, 특수직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예술인이 직접 직장이나 생활공간 등을 찾아가 공연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예술인에게는 예술 일자리 창출을, 도민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은 총 42회 이상 공연 운영을 목표로 하며, △청년예술인 공연팀과 △참여 희망 기업·기관을 동시에 모집한다. 신청은 이메일(jbct7449@gmail.com)을 통해 가능하다. 청년예술인 공연팀은 도내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약 14팀 내외를 선발하며, 선정된 팀에는 연간 3회의 공연 기회와 함께 회당 50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공연활동비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연팀은 4월 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기관은 도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약 30개소



<사진=전북문화관광재단>

내외를 모집하며, 선정 시 연간 1~2회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4월 2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청년문화예술 주문배달서비스 사업은 청년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며, "청년예술인과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부안군, 서림공원 유아숲체험원 개장

오는 11월까지 산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은 서림공원 유아숲체험원을 개장하고 오는 11월까지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험원은 아이들이 숲에서 뛰어놀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사회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내 학부모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1만㎡ 규모의 체험원에서는 버마다리, 흔들다리, 암벽오르기, 모래놀이터, 그네 등 다양한 유아숲 놀이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서림공원 무장애나눔길을

따라 계절별 자연체험 활동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전문 자격을 갖춘 유아숲지도사가 상주하며 부안의 특색에 맞는 연간 수시형·정기형 계절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이용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부안군청 산림정원과 공원녹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이들이 숲 체험을 통해 신체와 정서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길이라며 앞으로도 질 높은 산림교육과 안전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부안 서림공원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사진=부안군>

순창군, 다문화가족과 소통의 장 마련

순창군은 지난 2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순창군 가족센터(센터장 문정현)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문화가족 회원을 비롯해 가족센터 관계자와 행정 관계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센터 주

요 사업 설명에 이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문정현 순창군 가족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고창군, 농촌 보육 공백 '제로' 도전

영유아 맞춤형 서비스 찾아가는 돌봄교실 호응

고창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찾아가는 돌봄교실' 사업이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돌봄교실은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보육시설이 없는 6개면(상하·성내·성송·신림·심원·아산)을 포함해 고창군내 읍·면의 영유아 80명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원거리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편도 30분(약 20km) 이상 이동해야 했던 가정이나, 가정보육 중인 영유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사업으로 찾아가는 장난감·도서

대여는 2인 1조의 전담 운영교사가 격주로 가정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양질의 놀이감과 도서를 대여하고 활용법을 지도한다. 양육코칭센터 상담전문위원과 센터장이 직접 영유아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기질별 맞춤 양육 전략을 제공해 부모의 양육 자신감을 높이고 있다.

농촌 지역의 보육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놀이 지원부터 부모 힐링까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중 상시 지원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돌봄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젊은 세대의 귀농·귀촌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미란 고창군 인제양성과장은 "앞으로도 '농촌형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매뉴얼을 정비해 더 많은 아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 공음면, 정보리발축제 맞이 '우리동네 새단장'

고창군 공음면 이장단연합회(회장 이간선)가 지난 25일 정보리발 축제장 진입로부터 축제장까지 '우리동네 새단장'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이장단은 삼, 빗자루, 낫 등 각자가 준비해 온 도구를 이용해 풀베기, 쓰레기수거, 도로 청소, 잡초 제거 등 구석구석 꼼꼼하게 정비했다.

이간선 공음면이장단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주민 화합과 마을 환경 가꾸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애숙 공음면장은 "앞으로도 깨끗한 공음, 행복한 공음"을 목표로 주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 개선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축 창간 15 주년

부안군의의회

부안군민이 재미나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정읍 산외면지사협, 취약계층에 '정성 가득' 밀반찬 나눔

정읍시 산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황석철)는 지난 25일, 식사 해결이 어려운 지역 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43가구를 위해 '사랑의 밀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산외면 협의회 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직접 장을 봐서 정성껏 조리한 밀반찬 3종(갯잎조림, 어묵볶음, 파김치 등)을 꾸러미로 제작해 관내 취약계층 43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위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은 없는지 살피며 이웃 간의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정운정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고 돕는 맞춤형 복지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 용진읍지사협, 어르신들 원에 치유 프로그램 진행

완주군 용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완연한 봄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정서적 활기를 되찾아드리기 위한 특별한 원에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용진읍 소재 '화담협동조합'에서 관내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마음 치유 원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위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개인 차량으로 행사장까지 모시는 차량 봉사는 물론, 원에 활동 보조 봉사까지 자처했다.

참석한 어르신들은 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흙을 만지고 꽃을 심으며 나만의 반려식물을 완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위안과 성취감을 만끽했다.

설선호 용진읍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익산 모현동, 이웃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복지

지역 봉사단 등 정기적 물품 지원 취약계층 돌봄 강화

익산시 모현동이 '우리동네복지'를 중심으로 이웃을 위한 나눔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모현동은 모현로컬나눔봉사단과 지역 교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모현로컬나눔봉사단은 40가정을 대상으로 밀반찬 지원을 이어가며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모현영성교회는 매월 20가정을 대상으로 1만 원

상당의 빵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다.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교회회는 26일부터 매일 첫째·셋째 목요일마다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10세대를 대상으로 2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밀반찬 3종을 지원한다. 정성껏 준비된 물품은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5일부터는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사랑의 국수 나눔'을 운영해 지역 내 독거노인 200여 명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모현동이 '우리동네복지'를 중심으로 이웃을 위한 나눔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진=익산시>



남원 산내면 농약단, 행사 수익금 모아 경로당 생필품 지원

남원시 산내면 농약단(단장 이규동)은 지난 25일,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를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마련한 180만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화장지, 세제류, 커피 등 18박스)을 산내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산내면 농약단은 지난 2003년 창단 이래 현재 29명의 단원이 결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 예술 단체다. 특히 △2010년·2013년·2022년 흥부골 남원농악경연대회 '대상' △2024년 '최우수상' 수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며, 2023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농악경연대회에 남원시 대표로 출전하는 등 전국적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규동 농약단장은 "올해 풍년과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주민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물품인 만큼,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한 해를 보내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제 신평동지사협, 지역아동센터에 계란 전달

아동 건강한 식생활 도모

김제시 신평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6일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든든한 하루, 계란나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6년 신규 발굴한 사업으로, 성장기 아동에게 필요한 단백질 식품을 지원해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

해 마련했다. 사업은 신평동 관내 지역아동센터 4개소 이용 아동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JG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계란과 음료를 전달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 지원 물품은 계란 155판과 음료 13박스로, 아동들에게 단백질 섭취와 균형 잡힌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장학금 기탁 열기 이어져

(재)고창군장학재단은 지난 25일 총 3건, 7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아 지역인재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과 나눔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에은이네 감농장 정종필씨(200만원) △전국공무직노동조합 고창군지부(300만원) △정광알미늄(주) 남해룡대표(200만원)가 참여했다.

특히 '에은이네 감농장'은 나눔의 행복을 함께 실천하겠다는 가

족들이 뜻을 모아 두 자녀들의 용돈과 아르바이트비를 합해 매년 장학재단에 기탁한지 벌써 4년째이다.

재단 관계자는 "군민과 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모아주시는 정성은 고창의 미래를 밝히는 든든한 힘"이라며 "기탁자들의 따뜻한 뜻이 학생들에게 잘 전해져, 다시 지역을 빛내는 인재로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 삼례읍, '한넷물 장학금' 6년째 꿈 응원

완주군 삼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5일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중·고등학생 7명에게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올해로 6년 차에 접어든 '한넷물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역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소년 특화사업이다.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학생

에게는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매년 1회 장학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상영 공동위원장은 "어느덧 6년째 진행되고 있는 한넷물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역 학생들에게 매년 큰 힘이 되는 우리 협의체의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구네이버스-익산지역후원회, 플로깅 행사 진행

구네이버스 전북서부지부는 26일 익산지역후원회와 함께 지역사회 내 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에는 구내동명익산점(대표 진영섭), 희망나눔지역아동센터(대표이사 김복덕), 싸드라사드라(대표 김기수), 원광보건대학교(교수 황지애), 하늘채어린이집(원장 김오숙), 가락식품(대표 정다환) 등이 참여했으며, 왕자공주어린이집과 하늘채어린이집 재원 아동들도 봉사활동에 동참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정혜민 기자

심의회번호 : 제250108-종-182111호

<광고>

진안군의료원
JINANGUN MEDICAL CENTER

대표번호 : Tel. (063) 430-7000

축하 15주년

진안군의료원의 건강검진센터
Tel. (063) 430-7090 ~ 4
www.jgmc.kr

국가 암검진 선택이 아닌 필수
"미루지 말고 꼭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4주기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 결과
〈일반검진 부문 최우수 / 영유아검진·위암·대장암·자궁경부암 부문 우수 / 간암·유방암 부문 보통〉

진안군의료원 건강검진 종류	진안군의료원 건강검진 의료장비
일반국가검진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진안군의료원은 다양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건강검진 MRI, CT, 초음파 등 활용한 종합건강검진	
비급여검진 채용검진, 운전면허갱신, 총포, 국제결혼, 계절근로검진 등	
기타 검진 학생검진, 영유아검진	

건강검진 왜 꼭 받아야 할까요?
건강검진을 통해 만성질환 및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안군의료원의 건강검진
다양한 건강검진 및 세심한 관리
MRI, CT 등 다양한 의료장비를 바탕으로 정확한 종합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MRI CT



<사진제공=전북도>

현대차 9조 투자, 전북 미래산업 판 바꾼다

AI·로봇·수소 융합거점 현실화 전북 산업대전환 신호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가 전북 산업지형을 바꿀 대형 전환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공장 시설을 넘어 인공지능(AI), 로봇, 수소, 재생 에너지, 미래형 도시 모델을 한 공간에 집약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단일 기업 투자이자,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실증 거점으로 끌어올릴 상징적 계기로 평가된다.

(편집자 주)

◇ 새만금서 체결된 9조 투자협약...전북 최대 단일기업 투자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27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 새만금개발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부처와 광역 지자체,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투자협약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전북도는 이를 계기로 새만금이 국가 차원의 첨단산업 테스트베드이자 미래산업 플랫폼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단기간에 성사된 사업이 아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새만금개발청과 미래 모빌리티 및 AI 기반 스마트시티 관련 협력을 이어왔고, 전북도 역시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부지, 항만·공항·철도 연계 가능성에 주목해 전략적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 5대 핵심 사업 동시 추진...AI 데이터센터가

최대 축

현대차그룹의 투자 계획의 핵심은 5개 사업이 하나의 산업 생태계처럼 맞물려 추진된다는 점이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AI 수소시티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AI 데이터센터다. 총 5조8000억원이 투입되며, 100MW 규모로 구축된다. 1단계로 GPU 5만장급 연산 인프라를 도입해 자율주행, SDV, 스마트팩토리, 피지컬 AI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비 절감과 탄소중립 운영을 동시에 노린다는 전략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는 약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AI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설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기반으로,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의 풍부한 일조량과 기존 태양광 사업 경험을 토대로 단계적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친환경 수소 생산의 핵심인 수전해 플랜트에는 1조원이 배정됐다. 200MW 규모로 조성해 연간 3만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새만금 내 수소 모빌리티와 시범도시에 공급하는 구조다. 외부 의존 없이 생산과 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뤄지는 '자산지소형' 에너지 체계를 목표로 한다.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에는 4000억원이 투입된다. AI 수소 시티 조성 사업에도 4000억원이 들어간다. 이 사업은 AI, 로봇, 수소 에너지를 실제 생활공간과 도시 운영에 접목하는 미래형 실증 모델로, 새만금 스마트 수면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 경제효과 16조원, 고용 7만1000명...전북 산업 생태계 확장 기대

현대차그룹과 전북도는 이번 투자로 약 16조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7만1000명 규모의 직·간접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개별 시설 하나를 짓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에너지·제조·도시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AI 데이터센터가 디



지털 인프라의 핵심이 되고, 로봇 제조 클러스터가 생산기지 역할을 하며, 수전해 플랜트와 태양광 발전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여기에 AI 수소 시티가 실증 무대가 되면서 새만금 전체가 살아 있는 미래산업 시험장이 되는 셈이다.

전북도는 현대차의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새만금을 기업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산업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현대차 투자와 연계해 'AI 수소시티' 조성 및 미래산업 중심지 전략을 공식화했고, 총 57조7000억원 규모의 산업 대전환 로드맵도 제시했다.

◇ 전북도, 후속 지원체계 가동...산업 대전환 로드맵 본격화

초대형 투자에 맞춰 지방 행정도 속도전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 체질을 개선했다. 지난 4일부터 '공무원 전담 책임제'를 전면 가동했으며, 후속사업의 속도감 있는 대응과 체계적 추진을 위해 현대차 투자 지원 TF팀을 지난 20일자로 신설하였고, 부서별 흩어져있는 과제 전담 팀장과 협업하면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TF팀은 주간 회의를 정례화해 부서 간 쟁점을 즉각 조정하며, 국무조정실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와 긴밀하게 대응하면서 AI·수소·로봇·재생

에너지, 데이터센터 집적 단지 조성 지원 등이 핵심이다.

공장 가동의 필수 요소인 공업용수 문제도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군산정수장과 석성정수장을 통해 하루 30만톤의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며, 이 중 18만톤의 여유량이 있다. 전북도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 용담댐(일 30만)과 금강하굿둑(일 30만)을 추가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하루 60만 이상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검토를 마쳤다.

◇ 범정부 TF 출범... "3배 빠른 속도로 인허가 마칠 것"

정부는 전북적인 지원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가 꾸려져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한 이 자리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차관 5명이 배석했으며, 새만금개발청장과 전북도 관계자,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이도 함께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신속한 행정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대차의 이번 투자는 첨단 산업 주도 성장과 지방 주도 성장이 만나는 첫 번째 구체적 출발점"이라고 규정하며, "기존 관행보다 3배 빠른 속도로 행정 절차를 검토해 5월까지 종합 지원 계획을 마련하라"고 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TF 논의를 거쳐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 제도적 인센티브를 총망라한 '새만금-전북 대혁신 종합 지원 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에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9조원 투자를 지역 산업 구조 개편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로봇 제조 클러스터가 지역 제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이다. 여기에 수전해 플랜트와 태양광 발전이 에너지를 공급하면 새만금은 자생력을 갖춘 완벽한 미래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미 현대차 협력사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후속 투자 문의가 전북도에 줄을 잇고 있다.

/장정철 기자

축 **청간 15 주년**

시민이 주인!
더 듣고 더 뛰는 실천의회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